

등록번호	친일특위-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선 전문위원	부 위 원 장	위 원 장	결
등록일자	2020.6.	이선희	박권숙	김시춘		강명진	새
결재일자	2020.6.						
공개구분	공 개	협 조	사무처장 정영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충 청 남 도 의 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

◆ 친일잔재 청산 관련 강의·토론 및 독립기념관 관람

⇒ 친일잔재 청산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친일잔재 청산 및 독립운동가들의 예우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I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20. 6. 24.(수) 10:30 ~ 15:30
- 장 소 : 천안 독립기념관
- 참석인원 : 특위위원장 김영권 등 14명
 - 도 의 원(6) : 김영권, 이선영, 방한일, 전익현, 조철기, 한영신
 - 도의회 직원(7) : 김시춘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 토 론 자(1) : 당진시 역사문화연구소장 김학로
- 주요내용
 - 친일잔재 청산관련 강의 및 토론
 - 독립기념관 제2, 3전시관 및 특별전시관(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관람

II

현장방문 결과

① 친일잔재 청산관련 강의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김학로]

- 왕산 허위 일가를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
 -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나라로 자리매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일잔재청산에 대한 이야기에 오르내리고 있음. 우리가 친일잔재 청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시점임. 왕산허위선생 일가를

보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훈 처리나 그 예우에 대한 것을
도의회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고민해주었으면 함.

○ 이완용의 친구들과 후손을 통해 본 반민족행위자의 삶

- 소위 친일파라 불리는 반민족행위자들은 해방 후 나라에서
고위층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반민족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대대손손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완용과 전주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친일을 하였던
반민족행위자들도 많음. 그러나 이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대가는 이완용이 주범으로 받았던 비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

○ 일제잔재 청산의 과제

- 도내에도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지역의 대표인물로 추앙하고
선양하는 예가 셀 수 없이 많음. 이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며, 일제가 남긴 잔재와
반민족행위자들의 자취를 찾고 이를 청산해야 함. 그리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우리의 역사와 그 역사 중에
부끄러운 과오에 대해서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반민족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후세에게 친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통해 화해의 장을
마련해야 하여야 하고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함.

② 토론

○ 방한일 위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1)

- 친일잔재 청산은 후손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 아픈 우리의 역사를
거울삼아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후손들에게는 이런 힘든 역사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전익현 위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서천1)

-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위법조차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반민족행위자를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사과받자는 취지임. 반민족행위자인 민병석의 호가 춘장대여서 서천 춘장대 명칭을 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이렇게 친일 잔재라는 것이 뿌리가 깊고 청산하기 어려운 과제임.

○ 한영신위원(행정자치위원회, 천안2)

-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지만, 반민족행위자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맹점 중 하나이기도 함. 그래서 딱 집어 일제잔재를 전부 다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좀 더 날카롭게 살펴보고 하나하나 바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후세들에게 반민족행위에 대해 알려주고 후손들이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조철기위원(교육위원회, 아산3)

- 아산에는 윤보선 건립추진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데 윤보선 전 대통령 선조들의 친일행적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해 덩달아 당사자의 업적까지 저하되어 평가되는 실상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손에게까지 그 죄가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함.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 이선영위원(행정자치위원회, 비례)

- 당진에 임태식이란 인물도 일제에 부역하면서 기생했던 반민족 행위자이지만 당진에서 지역을 빛낸 인물로 칭송받고 명실상부한 친일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탑비까지 세우는 경우까지 있었음.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도 단죄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자란 세대라면 그냥 시대에 순응하며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많아질 것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친일잔재를 청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김영권위원장(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아산1)

-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 것은 큰 뜻에서 우리가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서 큰 공감을 한다는 것임. 그리고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의 취지나 목적 등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음. 일제침략기나 독립운동기를 거쳐 민족해방에 이르기까지 반민족행위자들의 공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음. 그러나 부끄러운 반민족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떳떳하게 자신들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함. 문화가 바뀌려면 100년의 역사가 필요함. 그러나 그 100년도 노력이 없으면 바뀌지 않음. 우리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함.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뜻깊은 자리임.

친일잔재 청산 관련 강의 및 토론



③ 독립기념관 관람

현장 사진	주요 내용
	○ 장 소 :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 (겨레의시련) ○ 내 용 :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좌절된 후 이어진 일제의 식민지배 실상 및 우리민족의 독립의지
	○ 장 소 : 독립기념관 제3전시관 (겨레의함성) ○ 내 용 : 3·1운동과 대중투쟁에 참여했던 민중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느껴봄
	○ 장 소 : 독립기념관 특별전시관 (봉오동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관) ○ 내 용 : 독립군 수기와 회고를 통해 본 독립전쟁의 역사(독립군 수기 20건을 포함한 독립전쟁 유물 82건 관람)

Ⅲ 향후 계획

-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정책반영 사항 지속 검토
- 친일잔재 청산과 더불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알리는 방안 마련

붙임 : 보도기사

붙임) 친일잔재 청산특위 현장방문보도 기사

○ 보도자료 제공일 : 2020. 6. 24. 수. (14:00)

○ 보도 결과 : 총 15건 보도

구 분	합 계	시면신문	인터넷신문	비 고
언론 보도	15	3	12	

중앙매일

2020년 06월 25일 (목)

종합 15면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권은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겨례의집에서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 부터 친일 잔재 관련 강의를 듣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대중무장,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담은 전시관을 관람하며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겼다.

김영권 위원장은(아산·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 산재한 친일 잔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친일잔재 청산과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수 기자

115 X 126 mm

투데이충남

2020년 06월 25일 (목)

종합 02면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겨례의집에서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 부터 친일 잔재 관련 강의를 듣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대

중무장,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담은 전시관을 관람하며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겼다.

김영권 위원장은(아산1·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 산재한 친일잔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친일잔재 청산과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모/석지후 기자

116 X 145 mm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 방문

우명균 기자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거례의 집에서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친일 잔재 관련 강의를 듣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대중투쟁,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담은 전시관을 관람하며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겼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 신재한 친일잔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친일잔재 청산과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06월 24일 (수)

충남

MBS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 방문

2020년 06월 25일 (목)

충남 01면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거례의 집에서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친일 잔재 관련 강의를 듣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1 X 112 mm

뉴스충청인

2020년 06월 24일 (수)

종합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세종방송

2020년 06월 24일 (수)

종합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세계타임즈

2020년 06월 24일 (수)

지역

[세계로컬핫뉴스]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국제뉴스

2020년 06월 24일 (수)

종합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정책 모색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
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
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
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
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
장방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
장방문**